

연습용 문제: 로로어

- 모든 모음과 자음 /b, m, n/에 대해서는 방언 간에 변이가 없다.
- 단어 당 오직 한 종류의 변이만이 자음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 ‘고기’와 ‘풀’의 어형들로 이루어졌을 때 키보리 방언의 ‘ch’는 다른 방언의 자음 하나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 정보가 완전히 주어진 줄만 종합하면 문제에 등장하는 변이는 네 개의 패턴으로 요약된다.

	히시우	델레나	키보리	파이타나
① 이빨	h	t	h	t
② 게	h	s	h	s
③ 고기, 풀	c	s	ch	c
④ 그가 달렸다, 연기	h	s	h	c

- 이 패턴들은 빈칸이 뚫린 줄을 설명하기에도 모순이나 모호함 없이 적절하다.

	히시우	델레나	키보리	파이타나	패턴
셋 (3)	#1	t	#2	#3	①
코	c	#4	#5	c	③
나무	c	#6	#7	#8	③
보아라!	h	t	h	#9	①
짐승	h	#10	#11	c	④

- 따라서 정답은 다음과 같다.

#1	#2	#3
aihau	aihau	aitau
#4	#5	
isu	ichu	
#6	#7	#8
masiu	machiu	maciu
		#9
		moitana
#10	#11	
masi	mahi	

도전용 문제: 인도네시아어, 자바어, 마두라어

세 언어는 계통적으로 서로 가깝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 각 언어에서 대응하는 음소들이 있고 그것들은 조상 언어에서 같은 음에 기원을 둘 것이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언어들이기는 하지만, 그 중 마두라어는 다른 두 언어보다 약간 이질적인 특징이 보인다. 자료를 분석해서 반사형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차이점을 설명하는 마두라어만의 특유한 제약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편의상 먼저 이 제약들을 제시한다.

- C1. 어떤 음소도 고모음성을 띠지 않는다.
- C2. 어말에서 성문음 이외의 구강 폐쇄음이 올 수 없다.
- C3. 한 음절만으로는 단어를 이룰 수 없다.

이제 나머지 두 언어까지 포함해 반사형들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 위의 세 가지 제약을 바탕으로 기술하겠다.

모음의 대응 관계

1. 인도네시아어와 자바어에 고모음 *i, u*가 나타나지만, C1이 존재하는 마두라어에서 대응하는 음소는 중저모음 $\epsilon, \text{ɔ}$ 이다(‘물론’, ‘고양이’, ‘빛’, ‘시간’).
2. 인도네시아어의 중(고)모음 *e, o* 역시 마두라어에서 중저모음 $\epsilon, \text{ɔ}$ 에 대응한다(‘바구니’, ‘큰 통’). 인도네시아어의 *e, o*가 자바어에서는 *e, o*로 대응되는 단어들을 볼 수 있고(‘방’, ‘담배’), 이 단어들에서 마두라어의 어형은 빈칸이지만 중저모음 $\epsilon, \text{ɔ}$ 에 대응한다고 생각했을 때 모순이 없다.

Indonesian		Javanese		Madurese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i>i</i>	<i>u</i>	<i>i</i>	<i>u</i>	ϵ	ɔ
<i>e</i>	<i>o</i>	<i>e</i>	ɔ		

요약하면, 인도네시아어와 자바어에서 고모음과 중모음이 각각 존재하는 데 비해, 마두라어에서는 C1에 의해 중저모음으로의 합류가 일어났다.

한편, *a*는 세 언어에서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ə 는 마두라어의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출현한다. ə 에 대해서는 [2음절화 규칙] 문단에서 다시 적겠다.

자음의 대응 관계

3. 세 언어에서 *n, ŋ*은 분포에 차이가 없다. *m*의 분포에는 빈칸이 있지만(*J.* ‘(한) 시간’), 비음으로서 자연부류를 이루므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4. 마찬가지로 유음 r도 반사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빈칸이 없는 ‘빛’, 빈칸이 하나 있는 ‘담배’). 유음 l도 그러하다(‘방’, ‘문’).
5. 그런데 활음 j, w는 인도네시아어와 자바어에는 존재하지만 마두라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활음이 고모음성을 띠기에 C1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마두라어에서 대응되는 음소는 조음 위치가 같은 유성 폐쇄음 j와 b로서, 장애음으로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물론’, ‘시간’, ‘믿다’, ‘문’).
6. 인도네시아어와 자바어에는 구강 폐쇄음 k, t로 끝나는 단어가 있다(첫 두 줄의 단어들). 마두라어에서는 C2에 의해 이 어말 폐쇄음들이 고유의 조음 위치를 잃고 성문음화해 ʔ가 된다.
7. 인도네시아어와 자바어의 d가 마두라어에서는 ɖ로 나타난다(두 번째 줄).
8. 인도네시아어의 후치경 파찰음 tʃ(무성)/dʒ(유성)과 자바어의 경구개 파찰음 c(무성)/j(유성)가 대응되며, 마두라어에서는 두 언어의 무성음이 무기음 c로, 유성음이 유기음 cʰ로 나타난다. 유기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마두라어의 j는 다른 두 언어의 경구개 활음 j에 대한 짝으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유성 경구개 파찰음에 대응되는 반사형은 연쇄적으로 다른 음소로 밀려났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시: ‘(한) 시간’, ‘자바섬’)

2음절화 규칙

- ‘빛’, ‘(한) 시간’, ‘방’, ‘큰 통’과 같은 단어들은 계통적으로 관계 있는 다른 언어들에서 1음절로 나타나므로 마두라어에서도 기저형은 1음절이라고 가정해도 합리적이다.
- 그런데 C3에 의해 마두라어는 단음절 단어를 표면형에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제약에 의해 이 단어들은 표면형에서 강제로 음절이 늘어난다.
- 구체적으로 음절을 늘리는 방법은 어두에 음소를 더 삽입하는 것이다. 원래 음절이 자음 X로 시작한다고 표시해보자. 우선 음절을 늘리기 위해 무표적 모음 ə를 삽입한다. 그러면 X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양쪽 음절에 모두 포함되도록 연장되면서 복제된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단, X가 cʰ 등의 유기음일 경우 복제된 쪽에는 기식을 표시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원래 음절 앞에 əX가 더 붙어 2음절화하게 된다.

A1.

- (1) **waktu** (J. ‘시간’, 인도네시아어와 동일)
- (2) **jam** (J. ‘(한) 시간’)
- (3) **əssel** (M. ‘방’, < 영어 cell 또는 네덜란드어 cel에서의 차용으로 보임.)
- (4) **cʰaba** (M. ‘자바섬’)
- (5) **rɔkɔʔ** (M. ‘담배’)
- (6) **partʃaja** (I. ‘믿다’, 실제로 쓰이는 단어는 percaya[pərtʃaja]이나 문제 내부에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님.)
- (7) **sak[i,e]{t,k}** (I. ‘아픈’, 2*2=4가지 경우의 수, 실제로 쓰이는 형태는 sakit임.)

A2. c^haja는 마두라어의 단어이다. 자바어에서는 jaja의 형태로, 인도네시아어에서는 dʒaja의 형태로 예측된다.

Indonesian	Javanese	Madurese
dʒaja	jaja	c ^h aja

역시 '승리'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जय (로마자로는 jaya)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어 철자법에 따라 [dʒaja]를 적어도 역시 jaya이다.

벨가뭇
yew.tomas0507@gmail.com

2024년 10월 20일